

CAROT의 파손

-필름벗지 리포트-

금번에는 CAROT의 파손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잘 나타나는 파손으로 우리가 라벨 이상이라 부르고 있는 파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 라벨의 문자가 지워지거나 굵혀 있는 것, 한번 물에 젖어 말린 후와 같은 주름이 잡혀 있거나 라벨에 얼룩이진 것 등을 뜻합니다. Fig 1~Fig 2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Fig. 1 약품등에 있는 얼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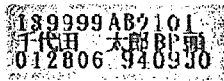


Fig. 2 침수, 세탁 등에 의한 흠집

이러한 원인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약품을 엮질렀다」, 「잘못하여 세탁을 했다」 등의 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양입니다.

약품이나 물이 CAROT의 素子에 부착하면 이상발광의 원인이 되어 정확한 수량을 보고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착의를 세탁할 때는 다시 한번 선량계의 유무를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라벨의 이상과는 좀 다르지만 바코드에 볼펜 등으로 무언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기를 Fig. 3에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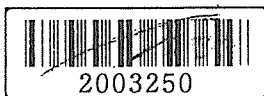


Fig. 3 바코드에 볼펜으로 갈긴 자욱

이와 같이 바코드에 문자 등이 적혀 있으면 바코드를 판독하기가 불가능해 집니다.

무슨 사정으로 CAROT에 문자를 기록할 경우에는 바코드가 아닌 라벨에 적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라벨의 이상만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CAROT 외관의 파손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무언가 끼워진 흔적이나 일부가 찌그러진 것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열로 CAROT 자체가 부풀어 오르거나 녹아버린 것도 있습니다. Fig. 4~Fig. 6에 그 보기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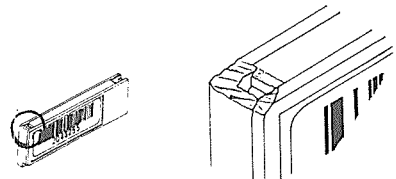


Fig. 4 무언가에 굽힌 자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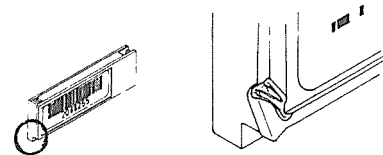


Fig. 5 무언가에 끼인 자욱



Fig. 6 열에 의한 변형

이것들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을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열에 의한 변형에 대해서는 세탁 후에 건조기에 넣었다는 등 여러 답을 얻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손까지 이르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객에게 선량의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FILM BADGE NEWS」, 日本 千代田保安에서)